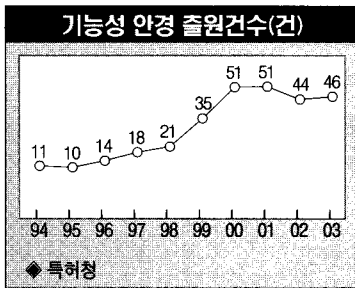


‘기능성 안경’ 특허 출원 증가

특허청에 따르면 안경과 관련된 특허출원은 '99년부터 큰 폭으로 늘어나 지난해에는 10년 전에 비해 1.7배 가량 증가한 1백99건이 출원되었고, 이들 가운데 다양한 기능을 가진 안경은 역시 10년 전에 비해 4배 가량 증가한 46건이 출원되어 전체의 23%를 차지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렇게 안경출원이 증가한 이유는 지난해 초·중·고생들의 근시자가 10년 전에 비해 2배 이상 늘었고, 주 5일제 근무제 도입과 함께 레저 인구가 증가하는 등 사회적 환경의 변화에 의한 것으로 분석된다.

출원증가율이 높게 나타난 다양한 기능을 가진 안경은 각종 레포츠 분야에 적합한 선글라스, 인체에 유해한 요소를 차단하는 건강안경, 렌즈의 색상변화를 통해 아름답게 보이도록 한 미용 안경 및



휴대폰과 같은 휴대용 기기를 결합시켜 생활용품화한 안경들이 주류를 이루고 있다.

레저 또는 스포츠용 안경에는 자연조건이나 운동 상황 등을 고려하여 빛의 투과량이 조절되는 선글라스, 운동시 안경의 탈락을 막을 수 있도록 헤어밴드와 겸용할 수 있도록 한 안경 등이 있다.

건강 안경에는 세균이나 전자파 또는 자외선 및 정전기를 차단하는 안경, 원적외선을 방출하는 안경, 눈의 경혈을 자극하여 눈의 피로를

감소시키는 안경, 눈이 마르는 현상을 방지하는 렌즈, 방향계를 내장시킨 향기나는 안경들이 있다.

미용 안경에는 렌즈에 다양한 색상을 부가한 미용컬러렌즈, 형상기억 합금으로 특정의 모양을 갖도록 한 안경, 안경테에 발광다이오드를 채용한 패션 안경과 이어폰 또는 핸드프리 기능을 부가하거나 운전 중 헤드라이트 불빛을 방지하는 안경 등 생활용품과 결합하여 편리성을 높인 안경이 있다.

이들 가운데 미용컬러렌즈, 형상기억 안경 및 패션 안경 등은 활발하게 상품으로 판매되고 있지만, 웰빙을 추구하는 라이프 스타일의 변화와 IT, BT 등 첨단기술의 지속적인 발달로 인해 앞으로 안경과 관련된 특허는 더욱 다양한 기능을 가진 기능성 안경이 주류를 이루며 출원이 증가할 것으로 전망된다.

웰빙 주도하는 ‘체지방 측정기’ 출원 꾸준히 증가

특허청에 따르면 '90년부터 '98년까지 1건에 불과하던 체지방 측정 관련 특허출원이 웰빙 바람을 타고, '99년 3건, 2000년 18건, 2001년 17건, 2002년 31건으로 꾸준히 증가하고 있다고 한다.

특히 성인병 발병과 관련이 깊은 내장 지방량은 그 동안 복부 컴퓨터 단층 촬영 등에 의해서만 측정할 수 있었으나, 최근 가정에서 손쉽게 측정 가능한 기술이 개발되어 특허발명으로는 처음으로 '99년에 1건, 2001년에 1건이 있었고, 2002년에는 8건으로 크게 확대되어 출원되었다.

최근에는 다이어트와 건강을 동시에 챙기려는 소비자들의 욕구에 맞추어 체지방 측정기를 손쉽게 사

용할 수 있도록, 손목시계, 휴대폰, MP3 플레이어 등 휴대용기와 좌변기, 컴퓨터 마우스, 키보드, 자동차 핸들, 텔레비전 리모콘, 줄넘기, 정수기 등 생활용품에 부착된 신상품 형태로 체지방측정 관련 특허가 출원되고 있다.

한편 체중 감소 후 그 것이 체지방의 감소인지 근육의 감소인지 아는 것은 매우 중요하므로 비만도 측정만이 가능한 현재의 체중계는 체지방 및 체성분 측정기가 대체해 나갈 것으로 보인다.

시장 형성 초기단계인

국내 체지방 측정기 시장은 2003년 기준 1천억원 정도로 업계는 추정하고 있고 국민들의 웰빙과 건강에 대한 관심에 맞추어 기능의 다양화, 저가격화, 휴대성, 편리성을 겨냥한 기술개발에 박차를 가하고 있다.



최근 웰빙 바람을 타고 체지방 측정기에 대한 관심이 높아짐에 따라 이에 대한 특허 출원도 꾸준히 증가하고 있다.

케이블TV방송협회, 'BSI DMC 특허' 이의 신청

브로드밴드솔루션즈(BSI·대표 김중욱)가 최근 확보한 디지털케이블TV 종합출력센터(DMC)의 비즈니스모델(BM) 특허권과 관련해 한국케이블TV방송협회(회장 유삼렬)가 이 달 안으로 특허청에 특허등록 이의신청을 제기하기로 했다. 케이블TV방송협회는 지난 11월 23일 협회 사무실에서 업계 관련자들이 모인 가운데 대책회의를 갖고 이같이 결정했다.

협회 관계자는 'BSI가 DMC

BM 특허권을 협회에 양수하는 조건으로 특허 가치를 상회하는 금전적인 보상을 요구했다'며 '이 요구를 수용하기 어려운데다, 추후 BSI가 케이블TV방송사(SO)들을 상대로 특허권을 행사할 우려가 있어 특허 무효화를 위해 협회가 이의신청을 하기로 했다'고 설명했다.

BSI는 지난 2002년 2월 4일 DMC 사업모델에 대해 특허청에 특허를 출원, 지난 9월 특허증을 발급받았다. 이에 대한 이의신청기간

은 관련 규정에 따라 특허증이 발부된 날로부터 3개월인 다음달 16일까지다. 이에 따라 협회는 이의신청과 함께 DMC 모델이 BSI가 특허를 출원하기 전부터 이미 업계에서 공론화됐던 것을 강조하고 이를 증빙할 자료들을 준비하고 있다.

한편 BSI는 협회 산하 디지털케이블TV 인증기관인 K랩스의 회원으로 가입했으며 오픈케이블방식 케이블카드에 대한 인증서를 발급받기로 했다고 밝혔다.

베스킨라빈스,빙그레상대상표권소송

베스킨 라빈스가 빙그레를 상대로 아이스크림 이름에 대한 상표권을 주장하며 소송을 냈다. '베스킨 라빈스31' 아이스크림 프랜차이즈업체 비알코리아는 지난 11월 20일 빙그레를 상대로 자사의 상품 '슈팅스타'와 비슷한 상표를 사용하지 말 것과 손해배상금 1억1천만원을 지급할 것을 청구하는 소장을 서울중앙지법에 제출했다.

비알코리아는 소장에서 '피고가 원고의 제품 인기에 무임승차하기 위해 원고의 상표와 유사한 '천(天)슈팅스타'를 아이스크림 상표로 사용하고 있다'며 '이는 부정경쟁방지법상 부정경쟁행위에 해당한다'고 주장했다.

비알코리아는 '그동안의 판매 실적 등을 볼 때 '슈팅스타'가 소비자 및 거래자 사이에 널리 인식돼 온 객관적으로 저명한 상표라는 점은 의문의 여지가 없다'고 덧붙였다.

비알코리아는 그 근거로 2001년 5월 '슈팅스타'를 판매하기 시작한지 다섯달만에 12억6천만여원의 광고비를 지출하는 등 효율적이고 집중적인 광고를 한 끝에 매출이 급성장, 지난해만 54억원의 매출을 올린 점을 들었다.



베스킨 라빈스가 자사 제품인 '슈팅스타(왼쪽)'와 비슷한 상표를 사용해 이익을 취하고 있다며 빙그레 '천슈팅스타'(오른쪽)에 대해 상표권 소송을 냈다.



'상황버섯·강낭콩 특허 내고 쓰세요'

우수품종 보호를 위한 품종보호 대상작물 42개가 추가된다. 농림부는 지난 11월 1일 품종보호대상작물지정고시를 개정, 강낭콩과 울무 등 42개 작물을 확대 지정한다고 밝혔다. 이번에 추가되는 작물은 식량작물인 강낭콩과 울무 외에도 특용작물인 상황버섯과 오미자 등 5종, 갖, 순무 등 채소류 4종, 다알리아, 프리자, 초롱꽃 등 화훼류 31종이 있다.

향후 품종보호 대상작물 지정에 대한 공감대 형성과 사전 홍보를 위해 2006년 지정 예정 작물 31종도 예고했다. 올해 지정 예정이던 딸기의 경우 국내 품종 개발 미진을 이유로 2006년으로 지정이 연기되었고 메밀, 부추, 아욱 등도 예정 고시했다.

농림부는 이번 추가 지정으로 국내 육종가의 신품종 육성의 욕을 고취, 농가 소득 증대와 수출증대가 기대된다고 밝혔다.

품종 보호대상 작물 지정고시는 1997년부터 권리보호를 통한 신품종 육성정책에 따라 시작됐으며 현재까지 총 1백55개 작물에 대해 품종 보호 출원 및 등록이 가능한 상태다.

- 지 / 면 / 안 / 내
- 2 '기능성 안경' 특허출원 증가
- 3 국내 온라인 교육시장 특허로 지킨다
- 4 특허청, 유럽공동체 상표제도 설명회 개최
- 5 무료로 이용할 수 있는 '공익 변리사 특허 상담센터'
- 6 한국특허정보원 ISO 9001 획득
- 9 인물 FOCUS·썬루디아바이오텍 하중심 대표
- 10 주례여자중학교 발명공작교실
- 13 일본 도시바, 하이닉스 상대 '특허침해' 소송
- 14 '2004 특허청 및 발명진흥유관단체 워크숍' 개최